

삼성-Sony 합작 S-LCD 공식출범

탕정단지 설비 2004년 시험가동 돌입 ... 이재용 상무 경영수업 본격화

삼성전자와 일본 Sony의 TFT-LCD 합작기업인 S-LCD(에스엘시디)가 공식 출범했다.

삼성전자와 Sony는 7월15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탕정사업장에서 윤종용 부회장과 이상완 LCD총괄 사장, 이재용 상무, 이태이 노부유키 소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LCD 창립기념식 및 설비 반입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자본금 2조1000억원인 S-LCD는 삼성전자가 지분의 50%+1주를, 소니가 50%-1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전자 LCD총괄 HD 디스플레이센터장 장원기 부사장이 맡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소니의 나카자와 케이이 씨가 맡았다.

S-LCD의 등기이사진은 장원기 부사장과 나카자와 CFO를 비롯해 이윤우 부회장, 이상완 LCD총괄 사장, 이재용 상무 등 삼성쪽 인사 4명과 일본측 인사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견희 삼성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상무는 S-LCD 등기이사를 맡아 회사 경영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삼성그룹 후계자 수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경영능력을 검증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LCD는 2004년 말 시험가동을 거쳐 2005년 상반기부터 7세대(1870×2200) LCD 패널을 매달 6만매씩 양산할 예정이며, 생산제품의 절반씩을 삼성전자와 Sony에 공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S-LCD 출범으로 삼성전자는 TV용 LCD 패널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Sony는 시장이 급성장하는 LCD 패널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돼 세계 LCD 표준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성된 FAB동 및 모듈동은 각각 4층 건물로 FAB동은 연면적 32만㎡, 모듈동은 15만㎡로 모듈동에서는 삼성전자와 Sony의 LCD TV 사양에 맞춰 모듈작업을 벌이게 된다.

S-LCD는 일단 7-1 라인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삼성전자와 Sony는 사업실적과 시장전망 분석 등을 거쳐 합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완 삼성전자 LCD총괄 사장은 “삼성과 Sony는 서로의 협력을 통해 LCD TV 시장을 선점하고 제품 표준화를 주도함으로써 LCD업계 1위 자리를 굳힐 수 있게 됐다”며 “탕정 크리스털밸리가 세계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쿠다라기 Sony 부사장은 “S-LCD의 최첨단 LCD 패널을 평면TV 전략의 핵심으로 삼을 것이며, 앞으로 디지털TV 시장에서 독자신호처리기술과 디자인, 다양한 콘텐츠로 매력적인 제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S-LCD 탕정공장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7년간 법인세와 주민세를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게 됐으며, 대외 지급수단으로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면제돼 모두 1151억원 가량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와 Sony는 2003년 2월 합작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 10월 양해각서를 맺은 데 이어 2004년 3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4월 S-LCD 법인을 설립했다.

<화학저널 2004/07/16>